

「원천강본풀이」를 시간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내력으로 보고 ‘원천강’을 시간의 본원이 되는 공간과 점서, 복서, 등의 점술서와 같은 면에서 고찰하였다<sup>4</sup>. 신동훈도 ‘원천강’을 예언의 권능을 지닌 무속경전과 사계절의 근원을 이루는 곳으로 보았다.<sup>5</sup>

점서는 인간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본풀이는 신들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로, 우주 질서에 대한 세계관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점사적 의미의 원천강도 시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시공간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천강본풀이」는 무형의 시간에 대한 상상력을 시공간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상상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은 연극, 애니메이션,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1999년 엄혜숙은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어린이 책으로 다시 쓰기를 시도 하였다.<sup>6</sup> 이후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꾸준히 다시 쓰기 되어 현재 「오늘이」란 제목으로 모두 9권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애니메이션 1편<sup>8</sup>이 제작되었고, 발레<sup>9</sup>와 음악극<sup>10</sup>이 공연되었다. 책은 출간된 것 가운데에서 절판된 엄혜숙본을 제외하면 청소년 이상이 볼 수 있는 책 1권,<sup>11</sup> 초등학교 이상이 볼 수 있는 동화책 2권,<sup>12</sup> 취학 전 유아부터 볼 수 있는 그림책 5권<sup>13</sup>이 있다. 그림책과 동화책 대부

4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5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 2006, 123쪽.  
6 엄혜숙 글, 이성숙 그림, 『한라궁이/오늘이』, 한겨레신문사, 1999. 절판됨.  
7 2010년, 7월 10일  
8 이성강, 『오늘이』, 디앤엠커뮤니케이션, 2003.  
9 김순정 창작발레 <시간의 꽃, 오늘>이 2008년 11월 27~28일 공연됨.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 애니메이션 <오늘이>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 28, 2007.  
10 2003년 극단 신화세상에서 <춘하추동 오늘이>을 무대에 올림. 김명석, 앞의 책.  
조태준, 이종호, 황호준,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2008~2010년까지 매월 5일에 국립국악원 상연.  
11 서정오, 「옥황신녀 오늘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신화』, 현암사, 2003.  
12 유영소 글, 한태희 그림, 『사계절의 신 오늘이』, 한겨레출판, 2009.  
초록인, 정승혜,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교학사, 2005.  
13 조호상 글, 김동성 그림, 『오늘이』, 웅진닷컴, 2003.  
서정오 글, 조수진 그림, 『오늘이』, 봄봄, 2007.  
허난희 글, 정승환 그림, 『오늘이』, 키움, 2008.

##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그림책 중심으로—

김 명 옥  
(건국대학교)

### I. 들어가기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 무가의 특수본풀이로서<sup>1</sup> 지역에 전승되어 온 신의 내력을 담고 있다. ‘원천강’이 어떤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크게 보아 점사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이와 동시에 시간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도 보는 견해가 있다. 장주근은 ‘원천강’을 “오행상서들을 저술한 당대의 복자이자, 도해역서인 원천강화주역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sup>2</sup> 강권용도 제주도 무가의 일반본풀이에 등장하는 ‘원천강’의 의미를 추정하고, ‘원천강’을 인간의 사주팔자와 관계된 점사적인 것으로 보았다.<sup>3</sup> 이수자는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제 2010-0011).

1 진성기는 제주도에서 구전되어온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고, 이 세 범주에 들지 않은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고 하였다.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항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국문과, 2001. 재인용.  
2 김혜정, 「제주도 특수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재인용.  
3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항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국문과, 2001.

본은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저본으로 삼아 ‘다시 쓰기’<sup>14</sup> 하였다. 초록인본과 이성강 애니메이션은 박봉춘본을 저본 삼아 ‘고쳐 쓰기’<sup>15</sup>를 시도하고 있다. 조태준의 어린이 음악극은 「원천강본풀이」에서 모티프만 빌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원천강본풀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향유 층을 대상으로 재창작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쓴 저작물에 비해 매체에 따른 서사 전략이나 문체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유진은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양상을 고찰하면서 서사무가와 구복여행담의 구조분석을 통해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요소를 밝히고 나아가 어린이책에는 이러한 신화적 요소가 삭제된 이유를 무속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도적인 거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행복이라는 현대 코드의 주제를 명징하게 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6</sup>

애니메이션 <오늘이>에 대한 연구는 신화의 보편적 주제를 감독이 어떻게 해석하고 작품에 반영하였는가를 살피는 조미라<sup>17</sup>와 변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에서 변신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무기 변신의 의미를 고찰하는 이원영<sup>18</sup> 그리고 서사무가와 애니메이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서사적 특성을 밝히는 이종호의 연구가 있다.<sup>19</sup> 실용적인 면에서는 문학논술 지도에 따른 영상매체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김명석의 연구<sup>20</sup>가 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가 다른 매체에 비해 더 많은 것은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맞게 민족의 상상

김선우 글, 김종민 그림, 『오늘이』, (주)한솔교육, 2009.

정하섭 글, 윤정주 그림, 『오늘이』, 웅진씹크빅, 2010.

14 서정오에 따르면 ‘다시쓰기’는 이야기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둔 채 이야기의 말투나 결가지리를 조금 손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52쪽.

15 이야기 본래의 중심생각은 허물어뜨리지 않지만, 즐거움 중에서 몇 부분을 빼거나 고치거나 더 집어넣어서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서정오, 앞의 책, 53쪽.

16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Vol. 6, 2010.

17 조미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7 No.2, 2007.

18 이원영, 「변신설화의 원형적 의미구조와 그 현대적 변용-구령이 변신담에 담긴 수성·인성·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과, 2009.

19 이종호,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은지논총』, Vol.27, 2011.

20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 - 애니메이션 <오늘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28, 2007.

력이 영상매체로 잘 변용된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설화가 영상매체의 핵심인 스토리텔링으로써의 가능성이 크고 아이들이 영상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본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매체는 책일 것이다. 그림책의 시각적 이미지는 아이들이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지 못한 의미를 메워주거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또한 그림책은 “시적 이미지와 방법을 지향”<sup>21</sup>하므로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문학적 언어들을 익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체적 장치에 의해 ‘미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2</sup>

신화, 전설, 민담의 재화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과 정서를 후손에게 계승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 우주 대질서의 신화적 인식<sup>23</sup>과 예술성을 다시 쓴 <오늘이>가 제대로 계승 전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형된 옛이야기를 읽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옛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일그러진 형태로 후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점을 짚어볼 때, 재창작 된 어린이책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재화 된 어린이책의 서술전략과 문체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민족유산 계승하는 작품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어린이책 문체 연구가 중요한 까닭이다.

본 연구자는 박봉춘본의 「원천강본풀이」를 다시 쓰기 한 그림책 <오늘이>의 서술전략과 문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매체에 따라 어떤 문체적 장치를 통해서 표현되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본래 「원천강본풀이」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 및 예술성과 어떻게 차별화 하는지를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 박혜숙, 「시 속의 그림, 그림책 속의 시에 대하여」, 『동화와 번역』, Vol.18, 2009.

22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253쪽.

23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801쪽.

24 김환희, 『옛이야기와 어린이책』, 창비, 2009, 10쪽.

대상이 되는 책은 현재 2010년 7월 10일까지 출간된 그림책 4권 가운데 다시 쓰기 한, 서정오본, 조호상본, 김선우본, 정하섭본이다. 텍스트 중심인 유영소본은 제외하였다. 다시 쓰기 한 책의 비교 대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쳐 쓰기한 허난희본 그림책과 초록인본 동화책은 「원천강본풀이」를 기본으로 하여 작가의 상상력을 보탠 것이다. 고쳐 쓰기 한 경우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2. 박봉춘본의 「원천강본풀이」 서사구조

「원천강본풀이」는 일본인 적송지성(赤松智城)과 추엽옹(秋葉隆)이 채록해서 『조선무속의 연구』에 실은 박봉춘본과 진성기가 채록해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실은 조생술본이다. 하지만 이 저본들은 유사점이 거의 없다. 조생술본은 나라에서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는 것을 알고 남편을 잡으려 한다. 남편은 이 사실을 미리알고 항아리에 숨는다. 나라에서 피를 내자 원천강이 그 피에 넘어간다. 남편은 잡혀가면서 부인에게 원천강이나 보면서 살라고 하여 부인을 원천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서사의 핵심이다.<sup>25</sup> 박봉춘본의 서사구조는 아래와 같다.

### 박봉춘본

- ① 옥 같은 여자아이가 들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오늘이라 불렀다.
- ② 오늘이는 백씨부인에게서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오늘이가 부인에게 그곳에 가는 길을 물으니 백씨부인은 백사가의 별충당의 장상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 ③ 오늘이는 장상을 만나 원천강 가는 길을 물으니 장상은 연화못가의 연꽃나무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그곳에 가거든 자신이 언제까지 글만 읽어야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
- ④ 연꽃나무는 청수와당의 대사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하고 그곳에 가거든 자신은 왜 상가지만 꽃을 피우는 팔자인지 알아봐 달라고 한다.
- ⑤ 청수와당에 이르는 오늘이는 대사에게 길을 물으니 대사는 청수바다를 건네 준

<sup>25</sup>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후 별충당의 매일이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원천강에 가거든 야광주를 셋이나 물고도 용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한다.

- ⑥ 매일이는 오늘이에게 길을 가다보면 낙루를 하고 있는 시녀공녀에게 물어보면 소원성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원천강에 가거든 자신이 왜 항상 글만 읽어야 하는 팔자인지 물어봐 달라고 한다.
- ⑦ 오늘이는 울고 있는 시녀들을 만나 그 이유를 묻고 그들의 문제, 바가지에 뿔린 구멍을 막아 물을 퍼준다. 시녀들은 백배사례하고 오늘이에게 원천강 길을 인도해준다.
- ⑧ 오늘이는 시녀의 도움을 받아 별궁에 도착하나 문지기에게 저지당하자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한다.
- ⑨ 오늘이의 통곡소리는 돌 같은 문지기의 심장을 움직인다. 문지기는 오늘이의 처지를 동정하여 부모궁에 올라가 이 사실을 고한다. 통곡소리를 들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오늘이를 데려오라고 한다.
- ⑩ 오늘이는 부모를 만나 학과 자라던 내력과 원천강에 오게 된 경위를 말하자 부모는 오늘이가 자신의 자식임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 ⑪ 오늘이는 사계절이 있는 원천강에서 며칠을 보낸 뒤 부모에게 원천강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장상, 연꽃나무, 대사, 매일이의 문제 해결방법을 묻고 부모는 그것의 해결방법과 동시에 오늘이가 연꽃나무의 상가지와 대사의 야광주를 받으면 신녀가 되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 ⑫ 오늘이는 인간세계로 돌아오면서 장상, 연꽃나무, 대사, 매일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옥황상제의 신녀가 되어 승천한다.
- ⑬ 신녀가 된 오늘이는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게 되었다.<sup>26</sup>

박봉춘본은 복을 찾아 떠나는 ‘구복여행담’의 유형과 닮아있다. 복을 구하기 위한 이계 여행담은 가난한 청년이 신에게 자신의 복을 빌러 가는 중에 만나는 사물이나 사람들이 청년에게 난제의 해결법을 물어다 줄 것을 부탁하는 구조가 많다. 주인공은 복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지만 부탁받은 문제의 해결법을 얻어 귀가 중에 전하는 과정에서 보답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주인공이 복을 받는다. 즉 구복여행의 기본 골격은 “행복의 결핍자 → 복을 구하기 위한 여행 → 난제 해결의 청탁 → 신에 의한 난제 해결 → 보상”이다.<sup>27</sup>

「원천강본풀이」는 전형적 구복여행담의 패턴이다. 주인공은 부모를 만나기 위한 여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부탁받는다. 오늘이는 부모상봉

<sup>26</sup> 赤松智城 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下』, 동문선, 1991.

<sup>27</sup>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중보개정판, 일조각, 1996. 168~170쪽.

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선녀가 된다.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서두에 나타나는 오늘이의 출생 비밀과 성장담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담과 닮았다. 오늘이 곁에는 추위와 굶주림 등 세상의 온갖 위험 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학이 있다. 버려진 영웅이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티프 는 고주몽 설화와 무조신인 바리공주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오늘이의 타계 여행 이유는 개인의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찾아간 것이다.

이에 비해 조생술본은 인물의 탄생 →모험→ 성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보편 적인 영웅 구조로 보기 어렵고 어린이용으로 다시 쓰기에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맞 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시기와 질투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정적인 여자 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권용이 지적했듯이 “어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미미하다. 비극적인 결말도 걸림돌이 되 는 요소이다. 하지만 박봉춘본은 구복여행담과 영웅담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sup>28</sup>가 풍부하다. 인물이 여행에서 겪은 모험과 고난 그리고 결 과로 이어지는 서사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옛사람들의 세 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의 열과 삶을 아이들에게 전승한다는 의미에서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작가들이 박봉춘본을 어린이용 재화의 저 본으로 삼은 것 같다.

### 3. 그림책 <오늘이>서술 전략

이 장에서는 박봉춘본과 다시 쓰기 한 그림책의 서술 차이를 살핀다. 또한 작 가가 하나의 저본으로 독자대상을 달리하여 재화할 때, 서술 장치는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살핀다.

<sup>28</sup> S.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9쪽.

#### 3.1. 박봉춘본과 그림책 텍스트들 간의 서사 차이

박봉춘본과 비교할 때 다시 쓰기 한 그림책들은 오늘이가 부모 상봉 직전에 문지기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빠졌거나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가 문지기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은 매우 극적이다.

지면에복와한오늘이는기백만리인간  
 원방에서쳐녀단지혼자의로히  
 원갓산과원갓물을건너웬고생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 이런곳을 차저왔는데  
 이러케도막장하게하는구나  
 이문안에는내부모잇슬연만은  
 (중략)  
 박정현문직이야, 무정현신인들아  
 그림웬던어머님아, 그림웬던아버님아(赤松智城, 秋葉隆 296-97)

오늘이의 독백인 이 울음소리에는 부모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오 늘이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다. 오늘이는 이 여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을 것이다. 그러한 힘든 여정 끝에 부모 상봉을 눈앞 에 두고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이는 서러움이 복받쳤을 것이다. 오늘이의 통 곡은 돌 같은 문지기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신념마저 바꿀 정도로 진정 성이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오늘이가 부모를 찾기 위한 여행의 마지막 관문이며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비장미 넘치는 오늘이의 통곡은 독자(청자)에게 카타르시스 를 느끼게 하고 장상, 연꽃나무, 대사, 매일이 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뿐 아니라 부모 상봉, 나아가 오늘이가 신으로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그림책에서는 대부분 이 장면이 빠져 있거나 삽입되어 있더라도 간단 하게 요약되어 있다. 조호상본은 “오늘이가 울며 간절히 부탁하자, 문지기는 할 수 없이 성안으로 들어가 웬 아이가 찾아왔다”고 함으로써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부모 와 자식 상봉을 미묘하게 처리했다. 서정오본에서는 오늘이가 문지기에게 부모님 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부모와 상봉한다. 정하섭본은 곡조 없이

영영 운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부모와 상봉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임을 확인하는 문답이 없이 서로를 바로 알아본다. 김선우본만이 울면서 지난날을 읊고 그 사연을 들은 문지기가 슬퍼서 신관에게 알린다. 그런데 김선우본에서도 박봉춘본에서처럼 비장미나 감정이 일시에 해소되는 맛이 없다.

그림책의 각 편이 박봉춘본처럼 긴장감이 일시에 해소된 느낌을 주지 못한 것은 서술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것을 말하고 어느 것을 보여주며 어느 것을 숨겨 독자의 몫으로 남기느냐는 서사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자 작가가 자신의 예술성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서술전략의 차이는 예술형상화 방법의 차이이고 나아가 예술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책 저본들이 서술전략상 이 장면을 요약하거나 삭제했다면 작가들이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거나 저본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가와 그림책이라는 매체 차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서사이기 때문에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부분을 요약 삭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박봉춘본의 서술 전략은 보여 주기와 들려주기 즉, 장면과 생략, 요약과 생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sup>29</sup> 오늘이의 등장에서부터 여행 중 대사와의 만남까지는 주로 장면과 생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과 장면 사이의 생략은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오늘이가 겪었을 고생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든 생각이 무엇일지를 오롯이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매일이와 옥황시녀와의 만남까지는 요약과 생략으로 서술의 완급을 조절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긴장감은 문지기와 대면에서 극을 이루고 이때, 장면을 사용하여 오늘이의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전략을 사용한다. 오늘이의 험난한 여정은 오로지 부모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부모를 눈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으니 서러움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선우본에서는 서술의 완급 조절 없이 장면과 생략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서사무가에서처럼 긴장미와 비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편 박봉춘본은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의 문제 해결 방

<sup>29</sup> 요약, 장면, 생략은 주네트 용어로 사용한 것이며 요약은, 서술하는 시간이 이야기 시간보다 짧게, 장면은 이야기시간과 서술하는 시간이 같고, 생략은 서술하는 시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요약은 들려주기이며 장면은 보여주기와 같다. 제라드 주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법을 각각의 대상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모두 요약으로 처리되어 이야기 시간보다 서술 시간이 매우 짧다. 반면 그림책은 4권 모두 오늘이가 각각의 등장인물을 만났던 역순으로 약간의 서술 시간만을 줄여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간이 끝없는 우주 순환, 사계절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서사의 긴장미를 떨어뜨린다.

### 3.2. 독자 대상에 따른 서술 차이

서정오는 「원천강본풀이」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오늘이』(봄봄, 2007)와 청소년 이상의 독자를 상정한 「옥황선녀 오늘이」(현암사, 2003)를 다시 쓰기 하였다. 한 작가가 하나의 저본을 독자 대상을 달리하여 재화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작가는 독자층에 따라 어떠한 서술전략을 사용하는 지, 문체적 장치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봄봄> 본

옛날옛적. 넓고 넓은 강림들 한복판에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

그 아이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았지.

(중략)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오늘 만난 아이라고 '오늘이'라 불렀어.<sup>30</sup>

#### <현암사> 본

아득히 먼 옛날, 인간 땅 지국성 강림들에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 이 아이는 강림들 한복판에 움막을 짓고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

(중략)

궁리 끝에 그냥 오늘 만났다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지어 줬지. 그때부터 이 아이 이름은 오늘이가 됐어. (서정오 44)<sup>31</sup>

봄봄본과 현암사본<sup>32</sup>은 수사법에서 차이가 있다. 봄봄의 서술자는 감정을 느낄

<sup>30</sup> 서정오, 조수진 그림, 『오늘이』, 봄봄, 2007. 밑줄 인용자 강조.

<sup>31</sup>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신화』, 현암사, 2003. 밑줄 인용자 강조.

<sup>32</sup> 동일 작가라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출판사본으로 처리하였다.

만한 어떠한 수사적 표현 없이 진술만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암사본은 오늘이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서술하고 있다. “움막을 짓고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라는 서술은 오늘이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독자에게 오늘이의 처지를 동정하게 한다.

서정오는 봄봄본과 현암사본에서 반복법과 직유법을 사용하여 이야기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봄봄본에서는 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넓디넓은’, ‘몇날 며칠’, ‘도련님 도련님, 글읽은 도련님’ 등과 같이 반복법을 사용하여 문장 안에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또한 장상, 연꽃나무, 대사, 매일 등의 대화를 같은 패턴으로 반복 사용해 전체적으로도 리듬감을 주고 있다. 반면 현암사본에서는 ‘모양은 둥근쟁반 같고 물빛은 거울처럼 맑은 연화꽃’이라는 문장에서 보이듯이 직유법, 점층법, 반복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얼마나 산이 험한지. 또는 얼마나 많은 물을 퍼내야 하는지, 강은 몇 번 더 건너는 지 등을 통해 원천강은 아주 먼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두 본이 크게 차이나는 점은 서술자의 논평이다. 논평은 하나의 ‘서사적 자질’로써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 자기 언급을 제외한 어떤 자질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난 서술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sup>33</sup> 즉 서술자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현암사본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행위를 보고하다가 평을 한다. 오늘이가 선녀를 만나 바가지의 구멍을 송진으로 막은 행위를 보고하는 장면이 그렇다.

오늘이가 딱하게 여기고, 산에 가서 정당풀을 베어 와서 꼭꼭 문쳐 말뚝처럼 만들었어. 그것으로 바가지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칠한 다음 벌에 말려 굳혔어. ①그러니 바가지로 물을 퍼도 한 방울도 안 새지. ②선녀들 셋과 오늘이가 힘을 합쳐 바가지로 우물물을 퍼내기를 사흘 밤 사흘 낮 동안 했더니, 우물물이 다 나와서 바닥이 보이거든, 그래서 선녀들이 죄를 씻고 옥황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③선녀들이 기뻐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늘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정오 49.)

①은 서술자가 서사를 중개하다가 서술자 자신의 판단, 오늘이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 솜씨를 좋게 보는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말한다. 그러나 ②에서는 인물들의 판단인지, 서술자의 판단인지 불명확하다. ③은 중개자로서의 목소리, 즉 선녀들의 행위를 독자에게 들려준다. ①은 서술자의 논평으로 ③은 보고된 서술로 독자들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②의 “우물물이 다 나와서 바닥이 보이거든, 그래서 선녀들이 죄를 씻고 옥황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라는 진술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으로, 우물퍼기의 행위자인 선녀들이나 오늘이의 시각에서 우물 바닥이 보이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지 서술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옥황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라는 진술에서는 서술자의 판단처럼 보인다. 정황상 ②번은 서술자가 서사를 중개하다가 인물의 행위를 논평 하다 보니 서술자 자신도 서사를 중개하고 있는지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지 모호하여 그 경계에서 수술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서술은 서술자가 애초에 이것이 ‘아득히 먼 옛날’이야기라고 상정하면서 서사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나 인물의 예상적 처지를 들어내는 어휘를 사용하다 보니 서술자가 인물과 밀착되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서술자는 자신이 오늘이에게 정서적으로 포섭되어 인물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오는 서술로 보인다.

서정오는 봄봄본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감정에 동조하는 어떠한 실마리도 나타내지 않는다. 무서운 이야기에선 거리두기 방법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sup>34</sup>. 오늘이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인물이며 부모를 찾아 떠나면 여행을 해야 한다. 어린 독자에게는 책 속의 어린아이가 홀로 있는 것도 공포이지만 알 수 없는 이계로 홀로 여행해야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따라서 서술자는 아이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암사본에서는 인물을 묘사하는 어휘나 인물 행위의 평을 통해서 독자들이 인물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가 청소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서적 체험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정오는 하나의 저본으로 다시쓰기를 하더라도 독자 대상에 따라 수사법과 논평 등의 서사

33 S.채트먼, 최상규 역, 『원화와 작화』, 예림기획, 1998, 308쪽.

34 엘렌 E. M. 로버츠, 김정 역, 『그림책 쓰는 법』, 문학동네, 2002, 107쪽.

적 자질을 통해 서술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원천강본풀이」, <오늘이> 문체의 특성

4장에서는 서사무가와 그림책의 문체와 의미를 살핀다.

##### 4.1. 박봉춘본의 문체

서사무가「원천강본풀이」는 곳 현장에서 무당이 구연하는 노래를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살아 있다. 공연자인 무당이 무대에서 홀로 청중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공연자(서술자)의 목소리가 결합한다. 이처럼 등장인물과 공연자의 목소리가 중첩되어 나타난 것은 자유간접문체다. 한국어에서 자유간접문체의 일반적인 특징은 인용문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인용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간접문체와 유사하지만 간접 인용표지 역시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문체와 변별된다.

일반적으로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의 중첩은 “서술자의 목소리와 작중 인물의 지각이나 감각의 공존, 두 개의 발화나 두 개의 초점화 사이, 하나의 발화와 하나의 초점화 사이에서도 작용”<sup>35</sup>하므로 ‘인물의 동시대화’<sup>36</sup>라고도 한다. 박봉춘본은 요약과 생략, 장면과 생략이 짝을 이루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인물의 목소리가 중첩된 곳은 주로 요약에서 나타난다.

이리하야오늘이는그대사의요구에쌀아서  
그등을탄안것다  
대사는오늘이들등에태워서  
해염을치고그청수아당을넘겨준후에  
가다보면매일이라는사람을만날터이니

35 윤영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에 관하여」, 『현대소설연구』, vol.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36 S.채트먼, 한용한 역, 앞의 책, 101쪽.

그사람에게무러보시오

①여기서작별하고가다보니

매일이는거변의청의동자모양으로

별충당우에안져, ②글을읽고있더라(赤松智城, 秋葉隆 295)

오늘이가 대사와 헤어지고 매일이를 만나는 장면은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①은 오늘이의 시점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청의동자 모양으로 별충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오늘이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더라’라고 청중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연자이다. 또 하나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공존은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여기’와 회상을 나타내는 과거시제 ‘더’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현재 말을 하는 ‘나(화자)’를 기점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쪽을 나타낸다.<sup>37</sup>그래서 ‘여기’는 현재성도 포섭하고 있다. ①에서 이야기시간은 오늘이의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오늘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되며 오늘이를 시점으로 진행한 이야기시간은 현재가 된다. 만약 위의 인용문이 서술자의 목소리였다면,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작별하고”로 서술되어야 맞다. 서술자는 현장에서 ‘지금’ 구연을 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는 오늘이의 목소리를, “글을읽고있더라”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서술자의 목소리다.

자유간접문체는 문지기와의 대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문지기와의 대면 장면에서 나타난 자유간접문체는 위에서 언급한 기능보다는 오늘이의 감정에 서술자가 동일시하는 장치로 드러난다.

- ① 문직의거절은넘우나냉정하얏고  
가런현오늘이에게는최후의절망인것갓치하야
- ② 하늘이문허지는갓갓터다  
오늘이는용기의최의일발까지를상실하고  
암전이암연하야부모국문전에혼도하얏다  
(중략)
- ③ 오늘이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37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74쪽.

연하야늦겨우니, ④돌갓튼문직이의엄통에도  
눈물의동정이올어났다(赤松智城, 秋葉隆 296-97)

서술자의 목소리와 오늘이의 목소리가 겹쳐 있지만 목소리의 주체를 안내해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①에서 문지기 거절이 너무나 냉정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서술자이다. 그래서 서술자는 문지기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오늘이에게 최후의 절망인 것 같아서 가련하다고 판단한다.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오늘이가 느끼는 절망이 최후의 절망인 것 같아서 오늘이에게 가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느끼는 주체는 오늘이다. 여기에서 서술자의 목소리와 작중인물인 오늘이의 목소리가 겹치는 것은 서술자가 오늘이의 감정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③과 ④도 ①과 ②처럼 ③은 오늘이의 행위를 중개하는 서술자의 목소리이며 ④의 돌 같은 심장에 동정이 일어난 주체는 문지기이다. 따라서 문지기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목소리가 결합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구연자가 현장에서 구연하면서 오늘이에게 감정적으로 몰입되면서 이러한 서술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4.2. 그림책 <오늘이>의 문체

그림책 <오늘이>는 4편 모두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문체는 인물의 행위가 중개된, 서술자가 서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서술자는 사건을 압축하고 자신의 언어로 통합시켜 자신의 문체로 표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간접문체를 사용하는 서사적 사건은 독자들에게 현실감을 주지 못한다.<sup>38</sup>

그림책은 모두 두루 낫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 했어, ~했지 등의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문체를 사용한 것은 옛날 문자가 없었던 시절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던 방식을 취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효과를 내기 위한 것 같다.

<sup>38</sup> 제라드 슈넬트, 앞의 책, 159~160쪽.

1) 조호상본  
오늘이는 도령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 달라고 했어.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지.

2) 김선우본  
사람들이 감탄하며 아이에게 말했단다.  
사람들을 따라 마을로 갔단다.

3) 서정오본  
넓디넓은 흰 모래땅을 몇 날 며칠 지나가니  
아니나다를까 소나무 언덕에 정자가 하나 있더라.

4) 정하섭본  
오늘이가 그러겠다고 하자, 장상이는 길을 알려 주었어.  
부모님은 오늘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

그림책은 모두 평서형의 전달체인 ‘했어’체를 쓰고 있다. 종결어미는 조호상본이 ‘어’, ‘네’, ‘지’를, 서정오본은 ‘어’, ‘래’, ‘지’를, 정하섭본은 ‘어’, ‘지’를, 김선우본은 ‘지’와 ‘단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반복 사용은 그림책의 최종목표인 간결한 문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어린이책 전문 편집자인 엘렌 E. 로버츠는 “어린이에게 간결한 문장이 전부이다”<sup>39</sup>라고 하였다. 간결함을 위해서는 반복이나 압운, 후렴, 대비, 추가 등의 기교를 사용하는데<sup>40</sup> 종결어미의 반복사용은 압운이나 후렴의 역할을 하고 리듬감을 준다. 또한 반복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동안 논리적으로 미약한 아이들에게 논리력을 강화시켜주고 상상력을 발전시킨다.<sup>41</sup>

조호상본과 서정오본은 종결어미를 ‘어’와 ‘지’ 사용 중간에 ‘네’와 ‘래’를 쓰면서 반복에 따른 변주를 주고 있다. 조호상본의 종결어미 ‘네’는 ‘한 도령이 글을 읽고 있네.’와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처럼 사물의 정체를 나타내는 진술에서 나타난다. 종결어미 ‘지’로 끝나는 문장은 대체로 서술자의 판단과 서사

<sup>39</sup> 엘렌 E. M. 로버츠, 위의 책 110쪽.

<sup>40</sup> 엘렌 E. M. 로버츠, 위의 책 92쪽.

<sup>41</sup> 엘렌 E. M. 로버츠, 위의 책 96쪽.



의 정보제공 그리고 서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서정오본에서 ‘래’는 정체진술에서 나타나지만, 대부분 회상 어미 ‘더’와 같이 쓰면서 오늘이가 만났던 인물이 말한 사물의 확인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서정오는 ‘래’를 ‘더’와 같이 쓰면서 독자의 옆에서 말을 건네듯이 매우 친근감 있게 만든다. 반면 김선우본의 ‘단다’체는 현대언어의 감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른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4.3. 문체에 나타난 「원천강본풀이」과 <오늘이>의미

서사무가는 우주 순환적인 시간 개념이 생기기 전에 자연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인식 과정이다. 즉 시간에 대한 사유방식이 「원천강본풀이」에 담겨 있다.

옥갓튼계집에가적막한드레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느어찌한아해나못더라  
나는강님들에서소사났습니다  
(중략)  
이리저러사람들이너는나흔날을몰으니  
오늘을나흔날로하야일음을오늘이라고하라(赤松智城, 秋葉隆 292)

위의 인용문은 「원천강본풀이」 첫 장면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인식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시간을 ‘적막한 들에 외로이 나타’났다고 표현한다. 외로이는 문맥상 홀연히 나타났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적막한 들’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곳은 태초의 공간이며 시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홀연히 나타난’ 옥 같은 계집아이에게 어떠한 아이냐고 묻는데 아이는 강님들에서 ‘숫아났다’고 한다. 그리고는 성도 이름도 모르지만 강님들에서 숫아날 때부터 학의 보살핌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것은 맨 처음 시간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탐색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옛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신의 영역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오늘이가 강림들에서 숫아나면 서부터 학이 보살피주어 오늘날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간은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있었지만 그것은 형태가 없어서 인식하지 못하다가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시간이 있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을 ‘홀연히 나타났고, 숫아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근원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 ‘오늘’처럼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시간을 ‘오늘’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천강본풀이」는 시·공간에 근원적 물음에 대해 동양적 사유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무가가 시·공간에 대한 사유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라면 그림책에서는 이것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즉 시간에 대한 신화적 사유방식의 흔적만을 남기는 것이다.

그림책 각 편의 시작은 조호상본을 제외하고는 ‘옛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옛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래동화화한 책을 보면 서두는 모두 ‘옛날’이라고 시간을 명시 한다. 이러한 서술은 현대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아주 먼 과거의 시·공간이 인지된 옛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옛날’로 서술한 이야기 속에는 시간이 어떻게 인지하는 과정이 들어나 있지 않고 이미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정오의 “옛날 옛적, 넓고 넓은 강림들 한복판에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라는 서술은 옛이야기 서두의 전형적 패턴을 따르고 있다. 서두 첫 문장에 시공간뿐 아니라 인물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책의 마지막 서사도 사계절을 다루는 신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서사는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과 만남이후 되돌아오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도움을 준 이들의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준 후 선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하섭본과 서정오본 그리고 조호상본은 오늘이가 옥황상제의 선녀가 되었다고 하고 김선우본은 “선녀가 된 오늘이는 사계절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구나”라며 서사를 매듭짓고 있다.

서사무가에서는 옛사람들이 시간의 본질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림책에서는 사계절의 순환과 그것을 다스리는 신의 이야기를 라는 점을 부각시켜 재화하였다.

##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화는 다양한 매체로 재창작되고 있다.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그림책으로 매체 전환하여 재화할 때 나타나는 서술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림책으로 재창작된 것은 모두 박봉춘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었다. 조생술본은 어린이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미미하지만 박봉춘본은 구복여행담과 영웅담이 결합되어 있어 서사적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화는 저본이 지니는 의미를 후손에게 계승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화할 때는 저본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살려 재화하거나 저본이 지닌 의미가 오늘날에 맞지 않을 때에는 오늘날의 의미에 맞게 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예술적 성취가 나타난다.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그림책 <오늘이>의 각 편은 저본을 그대로 살려 재화하였다. 하지만 다시 쓰기 과정에서 저본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장면, 오늘이가 부모상봉을 앞에 두고 문지기의 저지로 부모궁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쏟아내는 비장한 통곡은 대부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작가들이 이 장면을 서술전략상 요약하거나 삭제했다면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거나 저본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가와 그림책이라는 매체 차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서사이기 때문에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부분을 요약 삭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가 통곡하는 장면은 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는 이 장면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장면이 빠지면 서사적 완

결성도 떨어지므로 예술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다시 쓰기 한 그림책들은 이 장면을 생략하거나 요약해 버림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서정오는 「원천강본풀이」를 그림책과 청소년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다시 쓰기 하였는데 독자대상에 따라서 수사법과 서술자 개입을 달리하였다. 청소년 이상 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쓰기 한 텍스트에서는 서술자의 중개인지 서술자의 판단인지 모호한 이중적인 목소리를 내포하고 있는 자유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유간접문체는 서술자의 평을 통해서 나타난다. 서술자는 보고된 서술을 통해서 서사와 거리두기를 하지만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하는 애상적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거리두기와 인물의 감정에 이입되는 경계에서 서술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원천강본풀이」를 다시 쓰기 한 그림책 중 서술전략과 문체중심으로 살폈다. 넓은 의미에서 문체도 서술전략에 포함되지만 이것을 구분한 까닭은 그림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서사무가에서 그림책으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문체였다.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주로 자유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사무가의 특성상 구연자가 현장에서 구연하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봤다. 그림책에서는 두루 낮은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서 모두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구전문학의 특성을 취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효과를 내기 위한 것과 옛 이야기라는 것을 명시하고 서사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서술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서사무가는 장면과 생략 요약과 생략을 적절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비장미와 긴장감을 주는 반면 그림책은 서사의 완급 조절이 없었다.

서사무가에는 옛사람들이 시간을 사유하고 그 개념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시간 개념이 생겨나기 전 자연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시간은 태초부터 존재해 왔는데 무형이라 인식하지 못했다가 사계절의 변화와 순환을 보고 느끼면서 시간의 흐름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홀연히 나타나고 사라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책에서는 사계절 신의 이야기로 재화하였다. 우리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 전

달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림책은 시간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은 빠진 채 길의 이야기만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는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매체 전환에 따른 서술전략을 소략하게나마 살폈다. 그 결과 재화한 그림책들은 서사무가가 지나는 사계절 순환이라는 주제를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서사무가가 지닌 예술성과 얼은 살리지 못했다. 서사무가의 절정부분을 맛있게 처리하여 예술적 성취를 위한 서술전략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주제어

「원천강본풀이」, <오늘이>, 그림책, 매체전환, 서술전략, 문체

### 참고문헌

#### <1차 자료>

김선우 글, 김종민 그림, 『오늘이』, (주)한솔교육, 2009.  
 서정오 글, 조수진 그림, 『오늘이』, 봄봄, 2007.  
 서정오, 「옥황선녀 오늘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신화』, 현암사, 2003.  
 유영소 글, 한태희 그림, 『사계절의 신 오늘이』, 한겨레출판, 2009.  
 이성강, 「오늘이」, 문공사, 2004.  
 赤松智城, 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下』, 동문선, 1991.  
 정하섭 글, 윤정주 그림, 『오늘이』, 웅진씽크빅, 2010.  
 조호상 글, 김동성 그림, 『오늘이』, 웅진닷컴, 2003.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초록인, 정승혜 그림,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교학사, 2005.

허난희 글, 정승환 그림, 『오늘이』, 키움, 2008.

#### <단행본 자료>

고영근 ·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환희, 『옛이야기와 어린이책』, 창비, 2009.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 2006.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1992.  
 제라드 쥬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진 쿠퍼,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까치, 2001.  
 엘렌 E. M. 로버츠, 김정 역, 『그림책 쓰는 법』, 문학동네, 2002.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S.채트먼, 최상규 역, 『원화와 담론』, 예림기획, 1998.  
 S.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논문 자료>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본풀이>, <허공에 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국문과, 2001.  
 김명석,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학논술 지도 전략- 애니메이션 <오늘이>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Vol. 28, 2007.  
 김혜정, 「제주도 특수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박혜숙, 「시 속의 그림, 그림책 속의 시에 대하여」, 『동화와 번역』, Vol.18, 2009.  
 \_\_\_\_\_, 「그림책의 은유와 환상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50, 2011.  
 윤영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자유간접문체에 관하여」, 『현대소설연구』, vol.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이원영, 「변신설화의 원형적 의미구조와 그 현대적 변용 - 구령이 변신담에 담긴 수성·인성·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과, 2009.

조미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7, 한국콘텐츠학회, 2007.

국문요약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오늘이>에 나타난  
서술전략과 문체 연구  
- 그림책 중심으로 -

김 명 옥

이 논문의 목적은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그림책으로 매체 전환할 때 나타나는 서술 전략을 살피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그림책 <오늘이>의 각 편은 박봉춘본을 재화하였다. 하지만 다시 쓰기 과정에서 저본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장면, 오늘이가 부모상봉을 앞에 두고 문지기의 저지로 부모궁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쏟아내는 비장한 통곡은 그림책 각 편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는 오늘이의 통곡장면에서 카타르시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쓰기 한 그림책들은 이 장면을 생략하거나 요약해 버림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서정오는 「원천강본풀이」를 그림책과 청소년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다시 쓰기 하였는데 독자대상에 따라서 수사법과 서술자 개입을 달리하였다.

서사무가에서 그림책으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문체였다. 그림책에서는 두루 낮은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서 모두 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술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서사무가는 장면과 생략 요약과 생략을 적절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비장미와 긴장감을 주는 반면 그림책은 서사의 완급조절이 없었다.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는 주로 자유간접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옛사람들이 시간을 사유하고 그 개념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시간 개념이 생겨나기 전 자연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깨닫고 그것을 홀연히 나타나고 사라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재화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매체 전환에 따른 서술전략을 소략하게나마 살폈다. 재화한 그림책들은 사계절 순환이라는 주

제를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서사무가가 지닌 예술성은 살리지 못했다. 그림책 각 편은 절정부분을 맛있게 처리하여 예술적 성취를 위한 서술전략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bstract

Research on Narration Strategy and Writing Style of *Oneuli*, a  
Picture Book of *Woncheongangbonpuri*  
— about Picture Book—

Kim, Myungok  
(Konkuk University)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narration strategy used in transitioning the epic *Woncheongangbonpuri* into a picture book. *Oneuli* is the picture book of *Woncheongangbonpuri*, and all chapters are about the story of Park Bong-Chun. However, the picture book does not completely encapsulate the most important scene in which *Oneuli* wails when stopped by gatekeepers from seeing parents. The scene is cathartic to readers at the climax of the story. However, the rewritten picture book condenses the story to lower descriptive tension. Seo Jeong-Oh rewrote *Woncheongangbonpuri* as a picture book and used a different writing style and narrator interven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audience.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epic and the picture book is the writing style. The picture book employs plain speech terms and indirect writing style. The narrative style is vastly different. The epic repeats writing styles including narration, omission and summary appropriately to have tragic beauty and tension but the picture book does not control the speed of narration.

The epic *Woncheongangbonpuri* usually uses indirect libre style. In addition, it contains how people reflected times and recognized the concept in the past. In the past, people recognized the flow of time by sensing changes of nature and came to have the concept of time.

The narration strategy of the picture book which is based on the epic

*Woncheongangbonpuri* was briefly researched. The picture book has a clear theme and cycle of seasons but fail to have the artistic value of the epic. Each chapter and its narration strategy fail to express the climax of each chapter with artistic value equal to that of the epic.

### Key Words

*Woncheongangbonpuri*, *Oneuli*, picture book, media conversion, narration strategy, literary style

김명옥

건국대학교 동화미디어창작학과

monster69@hanmail.net

접수연월일: 2011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0일

K C I